

전담 조직 세우고 해외 투자… 북미 RX 시장 선점 격돌

〈로봇 전환〉

국내 SI기업, 북미에 플랫폼

삼성SDS,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LG CNS, 피지컬웍스 플랫폼 실증
양사, 조직 재구성해 RX 전담 팀 신설
美 리쇼어링 맞춰 현지 공략 추진

삼성SDS와 LG CNS가 로봇 전환(RX) 플랫폼 사업에 나란히 뛰어들면서, 북미 지역이 국내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SI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출시 일정을 발표하며 RX 시장에 출시표를 냈다. LG CNS가 지난 5월 로봇 운영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공개한데 이은 것이다.

삼성SDS의 플랫폼은 생산 현장에서 설비와 로봇을 연결해 전체 공정을 제어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가 생산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로봇의 작업을 지시·조율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개입을 줄인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6’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SDS의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우선 430여개 제조 고객사들의 생산 라인에 로봇 자동화를 지원한 뒤 플랫폼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LG CNS는 국내 기업 약 20곳에 앞서 출시한 피지컬웍스 포지바통 플랫폼을 실증(PoC)하고 있다. 새벽배송 플랫폼 컬러와 종합 물류 기업 LX 판토스 등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이 지난 5월 7일 LG CNS RX 미디어 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 CNS

피지컬웍스를 통해 학습한 로봇이 주문 목록에 맞게 상품을 이동하고, 재고 관리까지 물류센터 전 업무를 수행한다.

삼성SDS와 LG CNS는 올해 RX 플랫폼 운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했다. 삼성SDS는 지난 6월 클라우드 사업부 내에 RX 사업팀과 실험팀을 각각 신설했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AI 인프라 도입부터 소프트웨어 보안 등 전 부문을

맡는 단일 조직이다.

LG CNS는 이보다 앞선 4월 스마트 물류·로봇사업 조직에 RX 이노베이션랩을 신설했다. 공장의 전체 업무 흐름과 기술검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산업 현장에 최적화 된 RX 모델 구축이 최종 목표다.

향후 이들이 공략할 시장은 북미 제조 공장이다. 현지에서 가동 중인 국내 제조 공장을 통해 시장에 안착한 뒤 글로벌 기업으로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이달 ‘리얼 서밋 2026’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지목했다. 중국에서 제고 공장을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현상을 배경으로 짰다.

LG CNS도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북미 지역에서 계열사 공장에 로봇 도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직접 개발한 로봇 ‘모바일 셔틀’이 파라바게트 텍사스 공장에서 피지컬웍스 플랫폼과 함께 투입된다.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 6월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미국의 피지컬 AI 기업 월드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다. 앞서 KKR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한 10조원 가량의 재원도 해당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LG CNS는 산업 맞춤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고도화를 위해 미국 AI 기업 스킵 AI 컨피그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텍스 메이트에도 투자했다.

향후 RX 사업의 성패는 글로벌 제조 고객사 확보에 달렸다. 기술적으로는 그룹 내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진출 기반은 그룹 제조 현장에서 쌓아온 공정 이해도와 레퍼런스”라며 “다양한 제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T, 글로벌 통신사와 AI·디지털 신뢰 협력

말레이시아 ‘GSMA M360 아세안’
정재현 CEO, 동남아 기업 인사 만나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협력 방안 모색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동남아시아 통신 기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기회를 다졌다.

SK텔레콤은 9일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글로벌 통신업계 주요 리더들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GSMA M360 아세안’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과 디지털 신뢰 구축 방안 등 현안을 다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비벡 바드리나트 GSM A 사무총장과 통신산업의 차세대 성장 기회 발굴과 AI 중심 통신 인프라 전환을 논의했다. 특히 SK텔레콤의 AI 풀스택 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디지털 범죄 예방, AI 기반의 네트워크 고도화 등 디지털 신뢰 확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재현 SK텔레콤 CEO(오른쪽)와 비벡 바드리나트 GSMA 사무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SK텔레콤

정 CEO는 말레이시아 알부카리그룹의 투자기업 트레이드윈즈와도 교류했다. 기업 내에서 항만,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을 이끄는 사이드 다니알 알부카리 이사와 만나 협력 기회를 다졌다.

오후에는 일본·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통신사 및 테크 기업 경영진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에 보안 강화, 기술 주권 확보, 거버넌스 재편 등을 통해 고객

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디지털 신뢰 구축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 CEO는 “AI 시대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디지털 신뢰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LG CNS, 9개 직무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AI·로보틱스 등서 세 자릿수 규모 총원

LG CNS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AI·로보틱스 등 9개 주요 직무에서 세 자릿수 규모로 인력을 총원한다. 모집 분야는 ▲AI ▲로보틱스 ▲컨설팅 ▲DX 엔지니어 ▲클라우드 AM ▲아키텍트 ▲ERP ▲스마트팩토리 ▲컨버전스 엔지니어 등이다.

AI 직무는 고객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설계·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사 후 금융, 공공, 제조, 물류 등 전 산업 영역에서 특화된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기획하며,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전환(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LG CNS의 미래 성장을 이끌 로보틱스 직무는 제조, 물류 등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고, 차세대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LG CNS는 지난 5월 국내 기업 최초로 로봇 학습·운영 통합 플랫폼 ‘피지

컬웍스’를 출시하는 등 국내 로봇 전환(RX)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컨설팅 직무는 비즈니스 이슈를 분석해 AX/D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DX 엔지니어는 디지털 금융, 공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 및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 전공과 관계가 지원 가능하다. 직무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원자는 채용 시 우대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필기전형은 ‘인성성검사’와 ‘CNS 특화검사’로 구성된다.

LG CNS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KT-서울아산병원, AI 의료 서비스 개발

의료 현장 AX 모델 발굴 추진
신속 진단·진료 품질 향상 기대

KT가 정부의 AI 기본의료 정책에 발맞춰 임상 AX 지원에 나선다.

KT는 서울아산병원과 AI 의료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서울아산병원이 추진하는 ‘AI 병원’ 구현의 일환이다. ‘AI 병원’은 환자 내원 시 AI가 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여러 시스템에 건강 기록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의료 AI 모델이다.

사업 협력을 위해 양측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는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김봉균 부사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AI 의료 기술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서울아산병원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등 의료 현장 인공지능 전환(AI) 모델의 발굴을 추진한다.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AI 서비스를 의료 현장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다. 내원 환자들은 대기시간 단축과 진료 품질 향상을 체감



(왼쪽부터)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김봉균 부사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10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업무협약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KT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KT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AI 의료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를 높이는 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SKB “행사 응모하고 가을야구 직관하세요”

‘비 티비 맥스 페스티벌’ 행사 진행

SK브로드밴드는 ‘비 티비 맥스 페스티벌’에서 KBO 포스트시즌 직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B 티비 플러스’와 ‘B 티비 플러스 맥스’ 가입자다. 비 티비 맥스 페스티벌은 이들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그동안 KBO 올스타전과 KBS 한가위 대기획 이승철 콘서트 등 직관 기회를 제공했다.

이달에는 공식 후원사로 참여 중인 2026 KBO 포스트시즌을 준비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직관 티켓을 마련했다. 응모 기간은 9월 11일부



터 27일까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페이지에서 응모 신청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모바일 B 티비 앱을 설치하고 셋톱박스과 연결하면 된다. 매 경기 5명에게 약 2매씩 최대 130매를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다.

/조민선 기자